

한국과 중국의 L3(제3언어) 습득 연구

— 연구 현황과 성과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金兌垠**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L3 습득 연구 현황
 - 2.1 한국 내 연구
 - 2.2 중국 내 연구
3. L3 습득 연구의 주요 쟁점과 한중의 연구 성과
 - 3.1 음운습득
 - 3.2 어휘습득
 - 3.3 통사습득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명 ‘다중언어’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서 유래하여 우리말에 흔하게 섞여 쓰이는 외래어, 즉 귀화한 외국어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말 외에 외국어 한 두 개쯤은 학습한 경험을 지니게 되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 교육 중에 새롭게 배우게 되는 외국어는 대체로 그 학습자의 세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성과임(NRF-2009-361-A00027).

** 延世大學校 言語情報研究院 HK教授

번째 언어, 즉 L3(제3언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 번째 언어, 즉 L2(제2언어)는 명실공히 국제어(lingua franca)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러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다중언어 사용 능력(multilingualism)이라고 하는데¹⁾ 최근 언어 습득 연구 분야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본고의 논의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중언어 습득 분야에서 사용되는 L1, L2, L3...등 'Ln'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학습자가 접한 언어를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여 모어가 L1이라면²⁾ 모어 이후 처음 배우게 되는 외국어를 L2라고 하고 그 이후 또 배우게 되는 다른 외국어를 L3라고 칭한다. 이런 개념을 따르면 이후에 접하는 외국어에도 순차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결국 'Ln'으로 칭하면 된다. 반면 모어는 L1, 현재의 목표어는 L3, 그리고 그 중간에 배운 기타 언어들은 L2라고 하여 시간적 순서의 개념이 아닌 모어와 선행외국어, 그리고 현재의 목표외국어로 그 개념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Hammarberg 2001) 또 순차적으로 정확히 제3언어만을 L3라고 하고 L3 포함 그 이후에 배우는 모든 언어는 $L \geq 3$ 로 표시하여 분명한 L3와 모어, 그리고 첫 번째 배운 외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를 가리킬 때의 개념적 차별성을 도모한 경우도 있다.(Fouser 2001) 이렇듯 연구자마다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연구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통일하여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내기에는 너무 다양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념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³⁾

1) 다중언어 사용 능력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enoz(2013) 참조.

2) 모어를 민족어 혹은 본족어와 같은 개념으로 보아 L1의 개념과 엄격히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모어가 처음 접하는 언어인 점만을 고려하여 특별히 구분하지 않기로 하겠다.

3) 이런 논의들은 주로 서양 언어권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동양권의 L3 습득 연구에서는 서양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의 관점에 맞게 서양에서 제시된 개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과거 다중언어 학습에 대한 연구는 주로 L2 습득 연구와 구분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L2 습득 연구가 최근까지도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는 모어를 L1으로, 목표어를 L2로 놓고 양자간의 관계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의 안에 Ln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 선행외국어의 영향에 대한 언급은 종종 이루어져왔다.(박지영·김태은 2016) 즉 다중언어 습득에 대한 인식은 이미 L2 습득 연구 분야에서도 다루어진 바가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2 습득의 관점에서는 선행외국어와 관계를 밝히는 데에 전폭적이거나 구체적일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L3 습득 연구는 반드시 L2와 구분되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L3 습득에 대한 L1과 L2의 선별적인, 혹은 동시다발적인 전이 현상을 구체적으로 모두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것처럼 L3 습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양 언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유럽의 한 언어가 L1이 되고 기타 다른 언어들이 L2와 L3가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상당수에 이른다.(Jarvis 2000, Ringbom 2001) 이는 지형적으로 가까운 유럽 여러 나라들의 잦은 언어 접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유럽의 L3 습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핀란드에 사는 스웨덴 사람들의 경우처럼 한 나라 안에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그 소수민족이 자기들만의 소수민족어를 사용하면서 국가 공용어를 배우고 영어까지 배우는 상황인 경우 이런 연구가 더욱 발달하였다.⁴⁾ 그리고 이들 연구는 주로 L1, L2, L3가 습득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고찰함으로써 L3 습득 과정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대표로 하는 동양의 연구에서는 주로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검증하는 형식으로 L3 습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서양의 연구 결과가 어떠한데 우리가 실험해 보니 그 결과가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론을 지지한다, 아니다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L3 습득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4) 박혜정(2016:142) 참조.

있다. 첫째는 그 동안 이루어진 서양의 L3 습득 연구를 개괄하고 소개하는 것이고(이성은 2014), 둘째는 한국어가 L3인 경우로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한 후 선행된 서양의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조재현 2011) 그리고 셋째는 한국인이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배울 때를 대상으로 하여 선행된 서양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또한 연구를 통해 서양의 연구 결과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주소정 2012)

반면 중국의 경우는 같은 동양권 연구여도 중국이 처한 고유한 언어적 환경으로 인해 우리와는 다른 형식으로 L3 습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서양의 L3 습득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는 우리와 동일하게 존재한다.(李佳 2011) 그러나 중국은 한족을 제외한 55개의 민족이 존재하는 나라이고 이들 소수민족 중 만주족과 회족을 제외한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L3 습득 연구가 우리보다 훨씬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적 환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고 중국의 공용어인 한어(漢語)를 L2로 하여 영어를 비롯한 또 다른 외국어를 L3로 하는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張貞愛 2008, 曾麗 2010, 康英華 2010) 반면 중국어를 L3로 하는 연구(林茵校 2016)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여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이 동양권에서도 L3 습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서양의 연구 성과에 대한 개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정리가 잘 되어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었듯 그동안 이루어진 동양권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점검과 정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L3 습득 연구와 중국의 L3 습득 연구를 최대한 조사하여 그 현황과 경향성을 파악하고 연구 성과를 정리한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L3 습득 연구 현황

2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L3 연구의 현황을 어종(語種), 언어 요소, 언어기능 등 논의의 대상과 주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연구 현황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내 연구는 논문 검색 사이트인 DBpia, KISS, RISS에서 '제3언어'와 'L3'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되는 논문들을 모두 수집하였다.⁵⁾ 중국 내 연구는 CNKI에서 '第三語言'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되는 논문들을 모두 수집하였다.⁶⁾ 검색된 논문들은 일일이 내용을 파악한 후 기준별로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한 논문에 이중으로 포함되는 것이 있는 경우 각각의 경우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나지영(2014)에서는 L3는 한국어로 통일되어 있지만 L1이 영어면 L2가 중국어, L1이 중국어면 영어가 L2인 화자들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L3는 한 가지로, L1과 L2는 두 가지로 처리하였다. 이런 방식은 중국논문의 통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2.1 한국 내 연구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검색엔진에서 '제3언어'와 'L3'를 검색어로 검색하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31개의 논문이 검색되는데 학위논문과 소논문을 구분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웹사이트는 차례로 www.dbpia.co.kr, kiss.kstudy.com, www.riss.kr이다.

6) CNKI에서는 '第三語言'으로만 검색해도 검색되는 논문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L3'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웹사이트는 <http://gb.oversea.cnki.net/kns55/default.aspx>이다.

(표 1) 한국 내 L3 습득 연구 논문

논문 총수	학위논문		소논문
	박사	석사	
31	2	9	20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3언어'와 'L3'로 검색하면 전자에 의해 21개의 논문이, 후자에 의해 10개의 논문이 검색된다. 이 중 11개는 학위논문으로 박사논문이 2개, 석사논문이 9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제2언어로 검색했을 때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검색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L3 연구는 L2 연구에 비해 다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L3에 해당하는 목표어를 L2와 구분하지 않고 모어에 대비되는 목표어로서만 다뤄 L2 습득의 연구 영역으로 다룬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국 내 L3 연구 논문들이 L1-L3로 다루고 있는 어종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2) 한국 내 연구의 L1, L2, L3 대상어

대상어	어종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몽골어	조선어	다양	태국어
L1	17	5	4	2	2	2	2	1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다양	
L2	23	5	5	1	1	1		
	한국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웨덴어	
L3	12	11	4	1	1	1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내 연구의 L1은 한국어가 단연 압도적으로 많다. 즉 한국 내 연구는 L3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 대한 연구보다 내국인이 L3를 습득할 때를 연구의 대상으로 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L3로서 한국어 습득은 주로 몽골이나 대만, 조

선죽, 중국 등과 같이 주로 중국 지역 학습자임을 더불어 알 수 있다. 이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수·학습의 학습자 중에는 중국인이 많다는 공공연한 우리 실정의 일면을 잘 반영해 준다. L2의 경우는 단연 영어가 압도적이고 수적으로 차이는 상당히 나지만 중국어와 일어가 그 뒤를 이었다. L2가 영어인 것은 국제적인 흐름 상 매우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어려서부터 영어 학습 열기가 대단한 우리나라 실정을 생각할 때에 한국인 대상의 연구가 많은 국내의 L3 습득 연구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가장 주목하는 L3 대상 언어로 1위 자리는 한국어가 차지하였다. 이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 한국어’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연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L3 대상어는 독일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인이 영어를 선행학습한 후 독일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어는 국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외국어 학습 대상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많다는 것은 독일에서 이루어진 L3 습득 연구가 많았고⁷⁾ 이것이 국내의 L3로서 독일어 습득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각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언어요소와 언어기능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언어요소는 음운(발음), 어휘(형태), 통사(문법, 어순)로 나누어 살펴보고 언어기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밖에도 교수법이나 언어거리(language distance) 같은 유형학적 논의 및 신경언어학적 논의 등을 다룬 경우도 볼 수 있었다.

[표 3] 국내 L3 습득 연구 분야

분야	음운	어휘	통사	말하기	쓰기
개수	4	5	9	2	2
분야	교수법·학습전략		언어거리	신경언어학	인지
개수	5		1	2	1

7) 독일어 분야의 L3 습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소정(2012:4-8)에 잘 정리되어 있다.

[표 3]의 수치는 한 논문 안에서 발음과 어휘의 습득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면 그 각각을 해당 분야의 수치에 모두 포함시켜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통사적인 고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휘에 대한 연구가 그 다음을 이었다. 이 밖에 교수법이나 학습전략에 대한 연구가 언어 기능에 대한 연구보다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국내 연구가 언어요소의 습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비해 언어기능에 대한 주의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내는 반면 실제 교수·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논의에는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2.2 중국 내 연구

중국 논문 검색 프로그램인 CNKI에서 '第三語言'을 검색어로 검색하면 총 291개의 논문이 검색된다. CNKI에는 검색되는 논문에 대한 정보를 50개씩 한꺼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논문의 정보를 다운로드한 후 분류 작업을 진행하였다.⁸⁾ 그 결과를 [표 1]과 마찬가지로 학위논문과 소논문을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중국 내 L3 습득 연구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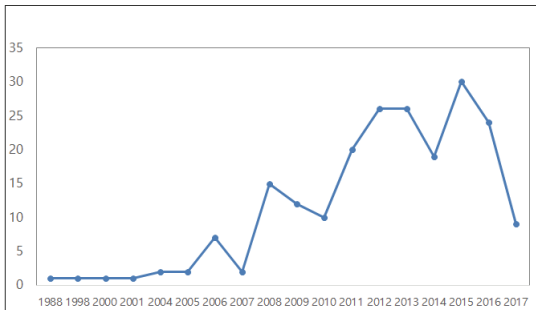
논문 총수	학위논문		소논문
	박사	석사	
208	2	74	132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내 L3 습득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매우 활발하

8) CNKI의 이런 기능은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별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는 실제 논문이 발표된 연도와 내려받은 파일에 제시되는 연도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처음 검색된 291개의 논문에는 실제로 L3에 관한 연구가 아닌 경우도 종종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연도를 대조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표 4]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다.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2 연구가 중국에서도 적지 않게 이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L3 습득을 L2 습득과 구분하는 것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는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는 상황에서 공용어인 한어를 배워야 하는 것이 중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는데다가 학교 교육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또 다른 외국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L1과는 전혀 다른 공영어 L2를 배워야 하는데 그 밖에 또 다른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L2와 L3 습득의 구분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L3 습득에 대한 강한 인식은 2000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CNKI 검색 결과 나타난 논문들의 발행년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증가 추세를 살펴본 것이다.

[표 5] 중국 내 L3 습득 연구의 증가 추세⁹⁾



사실 검색된 결과로 보면 L3라는 것을 정면에 걸고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88년 Ralph Albanese와 金木の <第三語言學習的三條根本理由>부터인 것

9)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다음과 같다. 2017년은 조사가 이루어진 9월까지 검색된 결과여서 그 수치가 급격히 줄어든 것처럼 나타난다.

연도	1988	1998	2000	2001	2004	2005	2006	2007	2008
개수	1	1	1	1	2	2	7	2	15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수	12	10	20	26	26	19	30	24	9

으로 확인된다. 이후 1990년대에 모두 7편의 L3 관련 논문이 발표되다가 2000-2010년에 79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201개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국어에서의 L3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도 꾸준히 더욱 많은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 비해 중국의 L2 습득과 L3 습득 구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하며 이러한 결과는 중국 내 L3 습득 연구는 앞으로 L2와 구분되어 더욱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다음 중국 내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L1, L2, L3는 각각 어떤 언어들인지 그 종류를 파악해 보면 [표 6]과 같다. 중국 내 연구의 경우 검색된 논문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발표된 154개 논문만을 대상으로 어종을 파악하였다. 그 중 실험 혹은 논의의 대상이 구체적인 경우만을 통계에 포함시키고 선행연구개괄과 같은 연구 논문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6] 중국 내 연구의 L1, L2, L3 대상어

대상어	어종				
L1	한어	위구르어	몽골어	티베트어	소수민족어 ¹⁰⁾
	34	30	24	15	12
	와어	조선어	이어	부이어	먀오어
	5	3	3	2	2
	살라어	장어	바이어	월방언	카자흐어
	2	2	2	1	1
	여러나라어	운남소수민족어	인도네시아어	케냐어	
1	1	1	1		
L2	한어	영어	일어	월방언	여러나라어
	104	32	2	1	1
L3	영어	일어	프랑스어	한어	독일어
	108	13	9	4	3
	한국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2	2	1	1	

10) 여기서 소수민족어란 구체적으로 특정 언어를 밝히지 않고 소수민족어라고만 언급한 경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내 연구에서 가장 많은 L1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의 공용어인 한어가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 인구 중 한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어 중에서는 위구르어를 L1으로 하는 연구가 한어 못지않게 많았으며 몽고어와 티베트어가 그 뒤를 이어 상당히 많은 연구들에서 L1 대상어가 되었다는 것은 또한 중국의 복잡한 언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¹¹⁾ 이 밖에도 개개의 연구 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소수민족어를 밝힌 연구들에서 외족(佉族), 조선족, 이족(彝族), 바이족(白族), 부이족(布依族), 살라족(撒拉族), 좡족(壯族), 먀오족(苗族) 등 매우 다양한 소수민족어가 L1의 대상이 되었다. 만약 ‘한어:소수민족어’를 놓고 본다면 약 ‘34:104’로¹²⁾ 중국의 L3 습득 연구는 주로 자국 내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는 학습자가 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외국어인 경우는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케냐어를 L1으로 하는 연구가 각각 1개씩 존재하였다. L2 대상어로는 공용어인 한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소수민족어 외에 공용어를 배워야 하는 중국의 언어 상황을 잘 반영해 준다. 한어 외에는 영어가 L2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한어를 L1으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제어인 영어를 배우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매우 소수지만 일어나 월방언 등이 L2인 연구도 존재하였다. L3 대상어로는 영어가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였다.

우를 가리킨다.

- 11) 위구르어족, 몽골족, 티베트족은 중국 소수민족 중에서 그 인구가 각각 5, 8, 9위를 차지하는, 상당히 많은 인종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이런 언어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많으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소수민족 중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보이는 것은 좡족(壯族)인데 반해 좡족을 L1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는 다소 의외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黃行(2013:72-73)에서는 중국 소수민족언어를 활발적인 정도에 따라 0→5(위험→활력)까지 등급을 매겨놓았는데 5급(안전)에 몽골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조선어 등이 포함된 반면 좡어는 4급(불안전/취약) 언어로 분류되어 있다. 좡족의 경우 흩어져 사는 양상을 나타내고 분산의 형태도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언어적으로도 지역 구어음마다 차이가 커 통일된 공통어가 없기 때문에 L3 습득 연구에서 L1 대상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2) ‘34:104’라는 수치에는 [표 6]에 제시된 중국의 언어 중 월방언에 대한 고려가 빠져있는데 이는 한어를 국가 공용어인 보통화(普通話)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며 월방언은 방언이지 소수민족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L1 대상어가 소수민족어, L2 대상어가 한어, L3 대상어가 국제어인 영어가 되는 경우를 매우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후 일어와 불어, 한어, 독어, 한국어, 러시아어 등이 L3 대상어로 등장했는데 영어에 비하면 소수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표 2]의 결과와 비교할 때 중국 내 연구는 그들의 공용어인 한어가 연구의 최종 목표어인 L3 대상어가 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L3 습득 연구의 대상자가 주로 소수민족에 속하는 자국민인 경우가 많고 중국 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다음은 [표 3]과 마찬가지로 각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언어요소와 언어기능에 대한 통계자료이다.

[표 7] 중국 내 L3 습득 연구 분야

분야	음운	어휘	통사	말하기
개수	30	33	32	6
분야	읽기	쓰기	듣기	담화
개수	6	16	7	2
분야	교수법·학습전략	동기·심리·태도	언어거리(객관·심리)	
개수	14	14	3	
분야	습관(언어·문화)	교재	학습장애요인	
개수	2	5	1	

조사 결과 중국 내 L3 습득 연구가 다루고 있는 언어요소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어휘를 연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사실 음운, 어휘, 통사 각각에 대한 연구가 매우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언어기능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연구가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 말하기, 읽기, 듣기가 매우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데 반해 쓰기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연구에 비해 다양한 언어기능 습득에 대한 시도가 엿보이지만 중국 내 언어요소 연구에 대한 수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요소에 비해 언어기능 습득에 대한 연구가 실험을 설계하고 측정, 평가하기가 언어요소에 비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흥미롭게도 중국 내 L3 습득 연구에서도 언어기능에 대한 연구보다 학습전략이나 동기 및 태도와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연구가 주로 교수법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면 중국의 경우는 주로 소수민족들이 L2 외에 L3를 배워야 하는 데에서 오는 학습자 태도 및 동기, 또 소수민족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가운데 다중언어를 습득하는 것이기에 생겨나는 학습자의 동기 및 태도, 이를 위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L3 습득 연구의 주요 쟁점과 한중의 연구 성과

지금까지 한중의 L3 습득 연구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 장에서는 L3 습득 분야에서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중의 연구 성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2장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언어요소에 대한 연구를 분야별로 나누어 3장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즉 연구 분야를 음운, 어휘, 통사로 나누고 각 분야별 주요 쟁점을 정리한 후 해당 분야에 대한 한중의 연구 성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¹³⁾

13) 3장의 논의는 서양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얻어진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한중의 해당 연구 성과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현재 L3 습득 분야의 연구 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때 중국 내 연구의 경우는 수적으로 많은 논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인용빈도가 10회 이상인 34개의 논문 중 대표적인 논문들이 되도록 논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양 연구 결과에 대한 개괄은 이미 이성은(2014)에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요약하여 본고에서는 그 결과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서양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성은(2014)을 참조하길 바란다.

3.1 음운습득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음운습득 영역 연구에 대한 논의에는 음소 인지 및 발음이나 강세 습득 등에 대한 연구를 논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L3 연구 초기에는 모어만이 L3 음운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L2의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다.(Llisterri and Poch-Olivé 1987, Ringbom 1987)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L1의 영향력은 적은 반면 L2의 L3 습득에 대한 영향력은 강력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Llama, Cardoso, and Luara 2007, Gut 2010) 특히 Llama, Cardoso, and Luara(2007)에서는 무성 파열음의 성개시 시간(VOT)과 기식성(aspiration)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의 L2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었고 결과적으로 L1이 아닌 L2 음운 지식이 L3 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또 Wrembel(2010)에서는 실험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L3 습득 수준을 상하로 나누어 L1과 L2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L3 수준이 낮은 경우는 L2의 영향이 컸지만 L3 수준이 높아지면 다시 L1의 영향이 더욱 증가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렇듯 서양에서 이루어진 L3 음운습득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먼저 L1의 영향력을 강조하다가 이후 L2의 영향력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이 또한 L3 습득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까지 도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L2의 습득 수준에 따른 L3 습득에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의 L3 음운습득에 대한 연구들 중 L1의 영향력을 강조한 것으로 Pyun(200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Pyun(2000)의 대상 언어는 L1이 한국어, L2가 영어, L3가 스웨덴어인데 이들 간의 음운법칙을 대조하고 한국인 학습자의 스웨덴어 오류를 분석하여 전이 측면에서 L1의 영향이 L2보다 훨씬 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한국어 음절 구조를 스웨덴어에 전이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스웨덴어의 복잡한 구조는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단순화시킨다는 것이다. 반면 Choi·Koheng(2015)에서는 한국어 음절 지각

수행 능력에 대한 실험을 통해 음운습득에서 L1의 L3에 대한 영향력은 L3 보다 선행학습된 L2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 연구는 L1이 영어와 중국어면서 L2로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학습자와 L1이 중국어이고 L2로서 영어를 습득했으며 L3로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학습자의 수행능력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L1이 영어인 학습자와 L1이 중국어면서 L2로서 한국어를 습득한 학습자 사이에는 수행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L1이 중국어면서 L2로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의 경우 가장 낮은 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모어 변인(L1)의 영향력이 목표어(L3) 이전 습득한 외국어(L2)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대상자의 개인별 언어 숙달도 및 언어 지식 변인의 편차를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L1과 L2 변인의 효과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한다는 뜻에서 실험대상자의 한국어 숙달도를 초급으로 통제하였다. 따라서 L3 능력에 따른 L1, L2의 영향력을 논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의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단순히 L2로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어만 구사하는 학습자 보다 높은 수행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식의 결론을 내려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이 다소 편협하다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L2의 L3 습득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에서 L3로서 영어를 배우는 조선족에 대한 사례 연구인 Song(2014)에서도 언급되었다. 이 연구는 연변 소재 4개교의 조선족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L1이 조선족 말이고 L2가 한어인 학습자의 L3로서 영어 습득에서 L2의 숙련도가 높은 경우 L3 습득에 더욱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아이가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려면 L1이든 L2든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Cummins의 문턱가설(Threshold Hypothesis)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성지혜·김용경(2013)에서도 한국인 학습자가 영어를 학습했던 경험과 영어 지식이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간접현상을 밝힘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이때 영어, 즉 L2에 대한 지식이 있는 독일어(L3) 학습자에게 영어에만 있는 음소는 전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일어에만 있는 음소는

부정적 전이로 작용하며, 영어와 독일어 공통음소는 긍정적 전이로 작용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실험 논문이 아닌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논문에서는 L2와 L3의 유사점은 학습을 촉진시키는 반면 차이점은 간섭현상을 일으켜 학습자의 오류를 발생시킨다는 SLA(Second Language Acquisition) 초기 대조분석가설과 같은 결론을 내놓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L3 음운습득에 대한 연구는 L3 습득을 표방하고 있지만 L1, L2, L3 간의 긴밀한 관계를 심도 있게 파고들고 있지 않다. 목표어가 L3일 뿐 기본적으로 L1과 L3, L2와 L3 관계를 각각 대조분석 하여 어느 것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인가 정도를 비교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는 데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보다 L3 습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내 연구 경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중국의 L3 음운습득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연구는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고 그들의 공통어인 한어를 L2로 하는 학습자의 영어 모음 습득에 관한 연구이다. CNKI를 통해 34회라는 높은 인용횟수를 보여주는阿斯罕(2009)의 연구에서는 몽골족 학습자와 한족 학습자의 영어 단모음 습득의 차이를 통해 L3 습득에 미치는 L1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음소변별 테스트 실험 결과, 몽골 학습자의 영어 단모음 습득이 한족 학습자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L1(몽골어)이 L3(영어) 모음 습득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L2(한어)에 비해 L1이 L3와의 언어 거리(language distance)가 더욱 가깝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동일한 몽골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영어 모음 장단 대비 실험을 진행한 歐亞麗·劉承宇(2009)에서는 언어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즉 유형학적으로 유사할수록 오히려 정확한 발음 습득에는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몽골어는 단모음이 장모음보다 유형학적으로 영어와 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영어 장모음을 더 정확하게 발음하였다는 것이다. 실험대상자들은阿斯罕(2009)과 마찬가지로 L1이 몽골어, L2가 한어, L3가 영어였으나 실험 결과와 논문의 결론은 두 논문이 상반되게 내

놓아 흥미로운 양상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이후 歐亞麗·劉承宇(2009)의 결과가 티베트어 화자의 영어 단모음 습득을 연구한 趙璐(2015)에 의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L1이 티베트어, L2가 한어, L3가 영어인 이 논문은 실험을 성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 단모음의 음성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영어 단모음이 티베트어에 있는 유사 모음에 의해 부정적인 전이가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다만 이 실험에서는 L2인 한어에 존재하는 영어 유사 모음도 똑같이 부정적인 전이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덧붙여 L1과 L2 모두 L3 모음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특히 유사 모음의 경우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歐亞麗·劉承宇(2009)가 L3에 유형적으로 더 가까운 L1에만 집중한 것에 비해 趙璐(2015)는 L1과 L2 모두를 고려했을 때 기존 논의와는 달리 유형적으로 유사한 점이 오히려 L3 습득에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고 하여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부이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기식음 습득을 연구한 熊凱娟(2016)에서도 L1-L3의 언어 거리가 L2-L3 보다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L1이 L3 기식음 습득에 미치는 부정적인 전이가 L2 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요컨대 중국 내 L3 음운습득은 주로 L1이 소수민족어, L2가 한어, L3가 영어인 상황에서 주로 유형학적 유사성을 근거로 언어 간 거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대적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는 언어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전이가 많다는 결론이 많았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언어 간 유사성이 오히려 정확한 발음 습득에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는 결론을 많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L2나 L3 수준을 변인으로 하여 L1과 L2가 L3 음운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이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논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향후 L3 음운습득에 미치는 L1과 L2의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 어휘습득

어휘습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L2를 습득한 학습자와 L3를 습득한 학습자 간 어휘습득 과정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일종의 ‘언어 전환 비용(Code switching cos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¹⁴⁾ 이를 통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L3 습득 학습자의 경우가 L2 습득 학습자보다 전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처리가 더 느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L2 습득과 L3 습득의 어휘습득 과정이 다르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성은(2014)은 이런 연구들이 언어 지식 간의 전환만 고려했을 뿐 전이현상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L3로서 어휘 습득 과정을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Dewaele(199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휘 간 전이 현상은 L1이 L2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고 L2가 L3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근 습득한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Filatova(2010)에서도 L1과 유사한 발음인 L3 어휘조차도 L2 어휘로 대체하는 현상을 보여줌으로써 L2 지식이 L1 보다 L3 습득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Wei(2006)는 학습자의 말실수 분석을 통해 L2가 L3 어휘 산출에서 중계자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좀 더 학습자 배경을 세분하여 실험을 진행한 Tremblay(2006)에서는 학습자의 L2 수준을 상하로 나누고 상 그룹을 다시 L2 환경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상하로 구분하였다. 이때 학습자 말실수를 분석하여 그들의 어휘습득을 측정하였는데 L2 수준이 높은 그룹의 L3 습득에서는 L1 전이는 적고 L2 전이가 강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 그중에서 노출이 더 심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L2의 영향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에 다른 연구들이 학습자의 L2 수준을 대체로 고려하지 않은 단점을 상당히 보완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어 보인다. 요컨대 서양의 논의들은 대체로 L3 어휘 습득은 최근에 습득한 L2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L2 수준이 높고 L2

14) ‘언어 전환 비용’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지작용에서 다른 인지작용으로 전환할 때 소요되는 인지적 자원의 양을 말한다. 이성은(2014:310) 인용.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L3 어휘 습득에 미치는 L2의 영향이 커진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상술한 서양의 연구 결과는 국내 L3 어휘 습득 연구에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L2로서 일본어 학습 경험이 L3로서 한국어 어휘 추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백영경(2013)에서는 L2(일본어) 습득 수준이 높을수록 L3(한국어)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L2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 L3 어휘 습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실험에서 상위 점수를 획득한 피험자 집단은 L3를 사용할 때 L1(각자의 모어)이 아닌 L2로 사고한 후 L3로 번역한다고 대답하여 그들의 메타언어적인 지식은 L1이 아닌 L2임을 시사해 주었다. 동시에 성공적으로 L3를 습득하는 학습자일수록 L3 습득이라고 해서 L2 보다 언어 전환 비용이 결코 더 드는 것이 아님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국인 학습자의 독일어 습득에 선행 영어 학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주소정(2012)의 연구에서도 L3(독일어) 어휘 습득에 L1(한국어)이 아닌 L2(영어)가 많은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L2로서 영어를 학습한 기간이 모두 6년 이상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영어를 학습해 왔으며 참가자 모두 독일어를 배우기 전에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기타 선행학습한 외국어가 있는 경우였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독일어 어휘를 추측하는 데에 영어 어휘 지식의 활용 방법, 사용 가능성의 여부 등을 상당히 정확히 판단하였으며 어휘 의미를 추론할 때에도 목표어인 독일어, 혹은 기타 다른 선행 외국어가 아닌 영어 지식을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실험은 L2를 학습한 기간을 토대로 학습자의 L2 수준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L2 수준에 따른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鄭有玠(2010)에서는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L2(영어)와 L3(독일어)의 숙련도에 따라 L2를 L3에 전이시키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집중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L2와 L3 모두 잘하는 L2(상)-L3(상) 그룹에서는 L2의 전이가 매우 적게 나타난 반면 L2(상)-L3(하) 그룹에서 L2의 전이가 가장 많

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3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L2 전이는 감소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면 L1의 영향력은 L3 숙련도라는 변인 앞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요컨대 L3 어휘 습득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체로 L2의 강력한 영향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여전히 L1, L2, L3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양상을 띠고 있다.

L3 어휘습득에 대한 중국 내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는 伍海燕(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81명의 비교적 많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L2 숙련도가 어휘는 물론 어음 및 통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L2 대상 언어는 영어이고 L3 대상 언어는 독일어로서 실험 결과 L2 숙련도가 가장 낮은 그룹의 L2 전이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L2 전이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한 Tremblay(2006)의 결과와 표면적으로 정반대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伍海燕(2011)의 연구는 L1(한어)이 워낙 L3(독일어)와 언어 거리가 멀고, L2(영어)는 L3와 유형학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L2의 수준이 낮을 때 L3로 전이를 많이 시키는 반면, Tremblay(2006)의 연구는 L3(독일어)와 유형적으로 가까운 L1(영어) 때문에 L2의 숙련도가 일정 정도 이상 이르러야 L1을 넘어 L2가 L3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두 연구의 상반된 결론의 근거를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인용횟수가 높은 편에 속하는 付靜媛(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L2(영어)의 L3(불어) 어휘 습득에 대한 영향력이 논의되었는데 그 이유를 L2와 L3의 언어 거리가 가깝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⁵⁾ 반면 50회 인용횟수를 보유하고 있는 李利·莫雷·王瑞明(2008)의 연구는 L3가 일어난 경우와 불어인 경우, L1 한어, L2 영어인 학습자가 L3 어휘를 받아들일 때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아들이는 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실험 결과 두 경우 모두 여전히 L1을 중개어로 하여 L3 어휘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L2의 숙련도가 높더라도 L2는 직

15) 이 연구의 L1은 한어이며 CNKI에서 총 인용횟수는 19회로 조회된다.

접적으로 L3에 전이되지 않고 L1을 거치는 간접 경로로 L3 어휘의 의미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언어 전환 비용의 측면에서 보자면 L3 학습자가 확실히 전환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 학습자의 L3 습득 수준은 낮은 편이었으며 대상 학습자의 L2 습득 시기도 비교적 늦은 시기였기에 L2를 L1으로 번역하는 식의 습득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임을 인정하면서도 L3 어휘 습득에 있어 L2 보다 L1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다는 점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매우 최근에 이루어진 張靜(2016)의 연구에서는 L1(한어), L2(영어), L3(일어) 간 언어 전이가 어휘 습득 분야 내에서도 어휘의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이와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나는가를 세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성(定性), 정량(定量) 분석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어휘테스트는 물론 설문지, 인터뷰 등을 모두 실행한 이 연구에서는 어휘의 의미와 형태 측면에서는 L1의 긍정적인 전이가, 어음과 품사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L2의 경우는 주로 형태 음운(morphophoneme)과 의미, 품사 측면에서 전이가 일어나는데 앞 두 가지에서는 긍정적인 전이가 주로 일어나는 반면 품사에서는 주로 부정적인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張靜(2016)의 연구는 어휘 습득을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L1과 L2가 L3 어휘습득의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의를 기울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으나 가장 핵심적인 L3 어휘습득에 L1과 L2가 어떤 경로(process)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L3 습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중국의 L3 습득 연구는 어휘 분야가 가장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보충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술한 것과 같이 존재하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L1-L2-L3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통사습득

L3 습득 연구에서 통사에 관한 연구는 [표 3]과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이는 서양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한 음운이나 어휘습득에 비해 이론적인 정립이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은(2014)에 따르면 첫째 모어 전이(L1 transfer), 누적 촉진 모델(Cumulative Enhancement Model), L2 상태 요인(L2 State Factor)¹⁶⁾, 언어 유형 우선 모델(Typological Primacy Model)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모어 전이에 대한 예로서 Jin(2009)의 연구를 보면 L1이 L3의 통사습득에 더 강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Na Ronong and Leung(2009)에서도 L2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L1의 문법지식이 L3 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때 L1이 L3와 통사적으로 더 유사한 언어이다. 반면 Flynn, Foley and Vinnitskaya(2004)는 L3 통사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L1이 아니라 L2의 문법지식이라고 주장하면서 선행학습된 언어지식은 L3로서 통사습득에 긍정적인 작용만을 한다는 누적 촉진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L1이든 L2든 그 지식의 L3 통사습득 촉진 기능만을 인정할 뿐 그들의 부정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였다. 이와는 달리 Bardel and Falk(2007)은 L3 습득 초기 단계에서는 선행학습된 L2의 영향이 매우 커 L2가 L3 통사습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L1이 L3 습득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전이까지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며 L2 상태 요인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최근 들어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언어 유형 우선 모델은 Rothman(2010)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한마디로 유형학적으로 유사한 선행학습 언어지식이 L3 통사습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16) 이성은(2014:316)에서는 'L2 State Factor'를 '제2언어 전이'로 명명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것이 'transfer'의 개념만을 말해줄 뿐 더욱 중요한 L1의 전이를 막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고 생각하여 'L2 state'를 그대로 직역해 'L2 상태 요인'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Foot(2009)의 실험결과도 유형학적 유사성이 L3 통사습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술한 L3 통사습득에 관한 서양 연구들의 결과는 최근 들어 국내 연구에서도 그 결과가 뒷받침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조재현(2011)의 연구는 L2 상태 요인과 누적 촉진 모델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연구에서는 L1(영어)와 L2(한국어)를 구사하는 학습자 집단인 통제그룹의 숙달도가 L1(영어/일본어), L2(일본어/영어), L3(한국어)를 구사하는 실험그룹의 숙달도보다 한국어 통사습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L1이든 L2든 일본어를 습득한 경험이 한국어 습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영어가 아닌 일본어 학습 경험이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형적으로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일본어의 영향력은 그것이 L1이나 L2냐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L2 상태 요인의 이론적 취약성을 밝히고 동시에 누적 촉진 모델을 뒷받침해 주었다. 또 L3 통사습득 수준에 따른 L1과 L2 전이에 대해서는 L3 숙련도가 향상됨에 따라 L1과 L2의 영향력이 감소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종은(2015)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L2로서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특히 L3 한국어 격조사 습득 초기에 긍정적인 전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3 수준이 중급으로 향상되면서 긍정적인 전이 외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전이가 함께 발견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전이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L3 습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L2의 영향력은 줄어든다고 하여 조재현(2011)과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L2와 L3 숙련도에 주의를 기울인 반면 L1(중국어)과 L3 습득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L3로서 한국어 격조사 습득에 대한 연구를 실험한 또 다른 연구인 한경인(2015)에서는 L3(한국어)의 수준과는 관계없이 L2(영어) 숙련도가 높은 경우 L2 숙련도가 낮은 그룹보다 L3 습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L2의 영향은 L3 습득 초기 단계에 더욱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L2의 긍정적

전이가 모두 일어나는 것을 들어 누적 촉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반면 L1(몽골어)과 L3의 유형학적 유사성이 L2와 L3 보다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L2 전이가 더욱 영향력을 보여준 것을 들어 L2가 L1의 영향력을 간섭하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L2 상태 요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재현(2011)의 결과와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이 두 논문의 차이점은 실험 대상의 L1이 서로 다르고 측정 분야가 다르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차이점이 결과의 차이점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내에서 이루어진 L3 통사습득 분야는 서양의 잘 정리된 이론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L2와 L3 숙련도에 대한 고려라는 차원에서는 보완된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많지만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향후 변인을 보다 더 잘 통제하고 구분하여 L3 통사습득의 본질을 밝히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L3 통사습득과는 달리 중국 내 연구는 비록 수적으로는 매우 우세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전히 L2와 L3 숙련도에 대한 고려가 상세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양한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고 L2는 그들의 공용어인 한어, L3는 국제어인 영어가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L2와 L3 어종이라는 변인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상황을 이점(利點)으로 그 숙련도 변인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L3 통사습득에 대한 더욱 근본적이고 일관된 결론이 얻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이루어진 중국 내 L3 통사습득에 관한 연구 중 L1(위구르어), L2(한어), L3(영어)의 어종이 동일한 두 연구 肖飛(2017)와 祖麗胡瑪爾·努爾麥麥提(2017)의 연구는 상반된 결론을 맺고 있다. 전자인 肖飛(2017)의 연구는 위구르족 중학생의 영어 작문 130개를 토대로 어휘, 형태, 통사 오류를 살펴 보았는데 그 중 통사 오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위구르족 학생과 한족 한생의 작문을 비교하여 전자는 L2로서 한어가, 후자는 L1으로 한어가

L3 습득에 전이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때 위구르족 학생들의 작문에는 L1인 위구르어의 전이도 함께 일어났는데 L2의 전이가 L1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祖麗胡瑪爾·努爾麥麥提(2017)의 연구에서는 위구르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문과 번역을 통해 측정한 결과, L3 습득 과정에 더욱 분명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L1 통사 구조의 부정적인 전이 현상이라고 하여 肖飛(2017)와 다른 결론을 내놓았다. 몽골족을 대상으로 한 康英華(2010)의 연구에서도 L3(영어) 관계절 습득에서 선행사를 후치하는 L1(몽골어)의 통사적 특징, 즉 선행사를 전치하는 영어와의 유형적 차이가 부정적인 전이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L2(한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몽골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또 다른 연구인 德力格其其格(2016)에서는 L3(영어) 관계절 습득에 L1(몽골어), L2(한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64명의 몽골족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L1이 L3 습득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반면 L2는 제약하는 작용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번역측정을 통한 실험 결과에서는 L1과 L2가 모두 L3 통사습득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康英華(2010) 보다 L2 전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는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으로 L1-L2-L3 습득의 관계를 유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지는 못 하고 오류나 회피전략을 통해 부정적인 전이가 나타나고 있음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실 최근 중국 내 다양한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대체로 L3 통사습득에서 L2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다. 岑松林(2011)에서는 L1(부이어)은 L3(영어) 통사습득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일으키지만 L2(한어)는 긍정적인 전이만을 일으키며 심지어 L1으로 부터 유발되는 부정적인 전이를 L2가 상쇄시켜 준다는 결론을 내놓으며 L2 상태 요인 가설을 뒷받침해주었다. 또 카자흐족을 대상으로 연구한 姬娜·沙里馬洪(2017)에서는 L1(카자흐어), L2(한어)가 모두 L3(영어) 피동문 습득에 영향을 미치지만 L2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다른 논문들에 비해 L2와 L3 수준을 비교적 상세하게 구분한 卓瑪(2013)에서

는 L3(영어) 문법 습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L2(한어)이며 L1(티베트어)의 전이 현상은 부정적인 전이만 이루어지고 그 정도도 약한 편이라고 하였다. 또 L1의 수준이 L3 문법 습득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지만 L2의 숙련도와는 확실한 연관성이 있어 L2 수준이 높을수록 L3 습득 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중국의 L3 통사습득 연구는 서양 이론에 대한 검증보다는 소수민족어를 L1으로 하는 학습자의 L3 습득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반드시 서양의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좋은 연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연구 성과가 상당한 진척을 보여 왔던 통사 분야인 만큼 중국 내 연구들이 여전히 L1, L2, L3 수준에 대한 상세한 고려 없이 일차원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초기 서양 연구의 한계점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존에 이루어진 논의들 보다 한결음 더 나아간 연구방법론과 분석을 통해 기존 논의를 점검하고 더욱 발전적인 이론의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나오는 말

L3 습득 연구는 근본적으로 L2 습득 연구와는 구분된다. L2 습득 과정에는 모어와 목표어라는 두 언어 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만 L3에는 1장에서 소개한 개념에 따라 정확한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3개 이상의 언어 간 전이 현상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 교육 학계에서는 한 사회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미 한 두 언어가 아님을 감안, 다중언어 교육의 일환으로 L3 습득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언어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럽언어를 중심으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L3 습득 연구는 더 이상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양 언어 중심의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진전되는 동안 동양 언어권에서는 이런 논의가 아직 서양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양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연구 사례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L3 습득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 성과의 쟁점과 논의를 정리해 보았다. 본고에서 소개된 이런 L3 습득에 관한 논의들이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어 L3로서 한국어나 중국어 연구에 초보적인 기틀이 되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향후 보다 발전된 L3 습득 논의가 국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參考文獻 >

- 나지영, 《다중언어 화자의 L1, L2가 L3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 한국어 말하기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박지영·김태은,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동목결합관계(動賓搭配) 양상 고찰-초중급(low-intermediate) 학습자의 작문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88, 119-156, 2016.
- 박혜정, <객관적 언어 거리와 심리적 언어 거리를 비교한 L3 전이 연구> 《응용언어학》 32(2), 141-173, 2016.
- 백영경, 《비한자어권 학습자의 일본어 학습 경험이 제3언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추측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성지혜·김용경, <영어의 간섭현상 분석을 통한 독일어 발음 및 어휘 교육>, 《교사교육연구》 52(3), 409-424, 2013.
- 이성은, <다중 언어 처리의 관점에서 본 제3언어 습득 연구의 개관 및 전망>, 《독일어 문화권연구》 23, 299-330, 2014.
- 이종은, 《제3언어로서의 한국어 격조사 습득 연구 -일본어 학습 경험이 있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鄭有珪, 《한국인 학습자의 제3언어 습득에 제2언어가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재현,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제2언어의 선행 학습경험이 제3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7, 277-300, 2011.
- 주소정, 《영어 학습이 제3언어로서의 독일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 - 어휘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한경인, 《몽골인 학습자의 제3언어로서 한국어 격조사 습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Choi, Jaesu · Boonrit Koheng, <A research on the effects of English learning experience as L2 on Korean audio-morphological awareness as L3>, 《한국어 교육》 26(2), 239-258, 2015.
- Pyun, Kwang-soo, <A Model of Interlanguage Analysis - the case of Swedish by Korean speakers>, 《언어학》 26, 199-224, 2000.
- Song, Hua, 《L2 Development and L3 Experience in Metalinguistic Awareness: The Case of Ethnic Korean L3 Learners of English in China》,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阿斯罕, 《蒙古族學生英語單元音習得中跨語言影響研究》, 西南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 岑松林, <布依族學生習得英語句型的母語遷移研究>, 《民族翻譯》 32(12), 92-98, 2011.
- 德力格其其格, 《非英語專業蒙古族大學生英語關係從句學習研究》,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付靜媛, 《母語和二語的遷移對二外法語學習的影響》, 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黃行, <少數民族語言文字使用情況調查述要>, 《民族翻譯》 88, 64-78, 2013.
- 姬娜·沙里馬洪, 《哈薩克族雙語高中生母語L1與漢語L2對英語L3被動語態習得影響》, 伊犁師範學院碩士學位論文, 2017.
- 康英華, “語言遷移對蒙古族大學生將英語作為第三語言學習的影響,”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31:5, 165-167, 2010.
- 李佳, <國內外三語習得研究述評>, 《貴州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129, 90-94, 2011.
- 李利·莫雷·王瑞明, <熟練中-英雙語者三語詞匯的語義通達>, 《心理學報》 40(5), 523-530, 2008.
- 林茵校, 《印尼新加坡國際學校中小學生漢語學習策略的個案調查》, 廣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歐亞麗·劉承宇, <語言距離對英語作為第三語言學習的蒙古族學生語言遷移的影響>, 《西

- 安外國語大學學報》17(4), 93-97, 2009.
- 伍海燕, 《三語學習中二語遷移的實証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 肖飛, 《概念遷移視角下維吾爾族和漢族初中生英語寫作中的錯誤對比研究》, 伊犁師範學院碩士學位論文, 2017.
- 熊凱娟, 《布依族學生英語送氣音習得的跨語言影響研究》, 江西師範大學統招碩士學位論文, 2016.
- 張貞愛, <中國朝鮮族英語教育研究綜述-作為第三語言教育研究>,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41(6), 71-77, 2008.
- 張靜, 《英語專業大學生L1(漢語)和L2(英語)對L3(日語)詞匯學習的遷移現象研究-以西安外國語大學英語專業學生為例》, 新疆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趙璫, 《藏語(撒拉方言)語者英語單元音習得中遷移現象的實驗研究》, 天津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 曾麗, 《苗族學生在三語習得中元語言意識的發展》, 西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 卓瑪, 《藏語與漢語水平對藏族大學生英語語法習得的影響研究-以西藏自治區某高校藏族大學生為例》, 西南交通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 祖麗胡瑪爾·努爾麥提提, 《維吾爾族高中雙語生英語學習中母語句法負遷移研究》, 伊犁師範學院碩士學位論文, 2017.
- Ralph Albanese · 金木, <第三語言學習的三條根本理由>, 《國外外語教學》4, 22-26, 1988.
- Bardel, Camilla and Ylva Falk, The role of the second languag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the case of Germanic syntax, *Second Language Research* 23(4), 459-484, 2007.
- Cenoz, Jasone, Defining Multilingualism,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33, 3-18, 2013.
- Dewaele, Jean-Marc, Lexical invention: French interlanguage as L2 versus L3, *Applied Linguistics* 19(4), 471-490, 1998.
- Filatova, Ksenya, Third language acquisition, macrocategories and synonymy, In Pütz, Martin and Laura Sicola(Eds.), *Cognitive Proceeding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side the Learner's Mind*,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9.
- Flynn, Suzanne, Claire Foley and Inna Vinnitskaya, The Cumulative-Enhancement Model for language acquisition: Comparing

- adults' and children's patterns of development in first, second and third languag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1(1), 3-16, 2004.
- Foote, Rebecca, Transfer in L3 acquisition: The role of typology. In Leung, Yan-kit Ingrid(Eds.), *Thir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Multilingual Matters, 2009.
- Fouser, Robert, Too close for comfort? Sociolinguistic transfer from Japanese into Korean as an L₃, in Jasone Cenoz, Britta Hufeisen, Ulrike Jessn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149-169, 2001.
- Gut, Ulrike,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L3 phonological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7(1), 19-38, 2010.
- Hammarberg, Björn, Roles of L1 and L2 in L3 production and acquisition, in Jasone Cenoz, Britta Hufeisen, Ulrike Jessn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21-41, 2001.
- Jarvis, Scott, Methodological rigor in the study of transfer: Identifying L1 influence in the interlanguage lexicon, *Language Learning* 50, 245-309, 2000.
- Jin, Fufen, Third language acquisition of Norwegian objects: Interlanguage transfer or L1 influence?, In Leung, Yan-kit Ingrid(Eds.), *Thir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Multilingual Matters, 2009.
- Llama, Raquel, Walcir Cardoso, and Collins Laura, The roles of typology and L2 status in the acquisition of L3 phonology: The influence of previously learnt languages on L3 speech production. In A.S. Rauber, M.A. Watkins and B.O. Baptista(Eds.):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Acquisition of Second Language Speech*, Federal University of Santa Catarina, 313-323, 2007.
- Llisterri, Joaquim and Dolors Poch-Olivé, Phonetic interference in bilingual's learning of a third language. In *Proceedings of the XI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 Academy of Science of the Estonian SSR Tallinn, 134-147, 1987.

- Na Ronong, Sirirat and Yan-kit Ingrid Leung, Null Objects in L1 Thai-L2 English-L3 Chinese: An empiricist take on a theoretical problem, In Leung, Yan-kit Ingrid(Eds.), *Thir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Multilingual Matters, 2009.
- Ringbom, Håkan, *Role of the first languag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Multilingual Matters 1987.
- Ringbom, Håkan, Lexical transfer in L3 production, in Jasone Cenoz, Britta Hufeisen, Ulrike Jessner(Eds.),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Psycholinguistic perspectives*, Multilingual Matters, 59-68, 2001.
- Rothman, Jason, On the typological economy of syntactic transfer: Word order and relative clause attachment preference in L3 Brazilian Portugues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48, 245-273, 2010.
- Tremblay, Marie-Claude,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ird language acquisition: The role of L2 proficiency and L2 exposure, *CLO/OPL* 34, 109-119, 2006.
- Wei, Longxing, The Multilingual mental lexicon and lemma transfer in thir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3(2), 88-104, 2006.
- Wrembel, Magdalena, L2-accented speech in L3 produ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7(1), 75-90, 2010.

< Abstract >

A Study on L3(the third language) Acquisition Researches Conducted in Korea and China — A Focus on the Current Conditions and Results of Researches

www.kci.go.kr Kim, Tae-eun

L3 acquisition(third language acquisition, TLA)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L2 acquisition(second language acquisition, SLA), since TLA involves more than 3 languages at least. While many TLA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and have suggested various hypotheses in the western countries, it seems that TLA researches did not step into a mature stage yet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with the viewpoint of SLA in the eastern countries. Striving to enhance TLA research in Korea, the current conditions and results of TLA researches in Korea and China are introduced in this study. The statistics of TLA researches, which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so far, were collected from DBpia, RISS, and KISS. The statistics of Chinese researches were collected from CNKI. The Korean TLA studies usually treated Korean as L3 and English as L2, while many Chinese TLA studies show that their L1 is one of their minority languages, L2 is Mandarin, and L3 is English. Many Korean studies focus on verifying the western hypotheses for the further step of TLA research, while many Chinese studies still seem to stay at the beginning stage of TLA, even though the number of Chinese TLA studies is much larger than the number of Korean TLA studies.

Key words: L3, L2, L1, TLA, SLA, acquisition, transfer, Korea, China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0.	2017. 11. 28.	2017. 12. 05.	2017. 12. 11.	2017. 12. 31.